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

심현민 · 구도완* · 최경희** · 최석진***

(한국환경교육학회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 단체 활동 상황

가.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사회환경교육 현황 파악 및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 연구 방법으로써 설문지 조사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

선정된 연구대상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제9차 환경보전시범학교(27개교)와 민간환경단체(61개 단체)로 총 88개의 단체이다.

88개 단체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48개 단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54.5%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설문지 생략>

2) 설문 조사 기간

본 조사에서 설문지는 2003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송 및 회수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합된 설문지의 선택형 문항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서술형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기관의 전반적인 환경교육 운영 실태

기관 내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기는 학교의 경우 14개교 중 1년~5년 전에 시작한 학교가 13개교로 92.9%를 차지했고, 6년~10년 전에 시작한 학교가 1개교(7.1%)였다.

이중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3년 전에 시작한 학교가 9개교, 2년 전에 시작한 학교가 3개교로 설문 조사 대상이 된 학교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제9차 환경보전시범학교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1년~5년전(44.1%), 6년~10년전(35.3%), 11년~15년전(8.9%), 21년전 이상(5.9%), 16년~20년전, 무응답(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하는 대상은 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그 중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기관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학교와 사회환경단체 모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관내에 대부분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자의 수는 1~4명이었으며, 환경교육 담당자로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한 경력은 교사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 사회환경단체에서는 4년 이상(53.9%)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기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환경단체에서는 6개월에 한번 정도, 방학을 이용하여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의 환경교육 형태는 학교에서는 '슬라이드, VTR 등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이, 사회환경단체에서는 '현장체험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다루는 환경교육 내용은 폐기물(17.9%), 재활용

(16.1%)에 관한 내용이었고, 사회환경단체에서는 자연생태계<숲, 하천 등>(29.8%)에 관한 내용이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사회환경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부족(13.7%),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와 교육 교재 및 학습자료 부족(각각 12.2%), 환경교육 담당자 부족(10.6%) 순의 응답을 보인 반면, 사회환경단체는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부족'과 '재정적 지원 부족'(각각 12.7%),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10.8%), '상급학교 입시 제도'(9.6%)를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경우 환경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 개발, 환경전담교사 근무 필요, 학교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쓰레기(병, 페트병)의 회수 및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행정·예산 지원, 환경교육을 담당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환경교육의 철학과 vision, tool 등을 배울 수 있는 재교육 공간 확보,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가 육성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 등의 응답을 하였다.

2)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에 대한 일반적 내용

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현재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상황에 대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기관의 경우 사회환경교육을 진행할 때 학교와 사회환경단체 연계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학교는 50%, 사회환경단체의 경우는 79.4%로 나타났고 그 경로는 학교의 요청과 기관의 자발적(자체적) 노력에 의해서, 환경교육 강사를 학교환경교육에 지원하거나, 학교 학생들이 사회환경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경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25.7%)', '재정 부족(20.9%)', '교사의 사회환경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16.3%)' 등의 응답을 한 반면,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인식 및 지원부족(20.8%)', '학교내 환경교육시간 부족(17.8%)', '교사의 사회환경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13.9%)' 등의 응답을 하여 학교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다른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교의 경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53.3%), 재정마련(26.7%), 교육시간 마련(20.0%)을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교육시간 마련(27.0%),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24.4%), 교사의 인식 제고(21.6%), 재정 마련(18.9%) 등을 말하였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적당한 단위는 시·군·구 단위라고 응답하였다.

3)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환경교육(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은 교육시간 확보, 사회환경교육(환경NGO/환경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연구기관·기업은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보급(33.4%)을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19.8%)을 가장 우선시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주도적 역할은 학교는 '초·중등학교와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사회환경단체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어떻게 연계되어 실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군(시) 단위 사회환경단체의 정기적 방문 교육, 사회환경교육기관에서 장소 및 물질적,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교육을 위한 공간 및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 사회환경교육기관에서 학교에 각종 프로그램 개

발·보급 및 주관, 초청, 학교는 정기적으로 환경교육 시간을 할당, 학생 또는 학교가 사회환경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회환경단체는 공교육 내에서 환경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학교,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민간환경단체, 기업 등)의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환경 조성,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주체가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가 주도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진행, 관할 구와 기업이 함께 환경교사 재교육 및 실비 차원의 재정지원, 환경교육 관련 법규 신설,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변화, 환경교육 수업일수 의무화, 교육기관과 단체의 전문성 확보 등으로 상호 연결, 정부의 행정 지도하에 연계,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지역의 환경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의 공간으로 이용 등의 응답을 했다.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이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는 주로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무공해 비누 만들기 등의 활동이나 주변 기관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방문 및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다.

사회환경단체는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강을 이용한 강의나 방학기간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주도하고 있었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발전에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재정적 지원, 환경단체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시키거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는 환경교과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교과로 전환, 학교에서의 시간 확보, 학생 인솔시 차량, 안전관리 등의 문제 해결, 프로그램개발과 교육교재 개발로 교재보급,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중심의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환경보존지역이나 환경시설의 교육적인 활용방안 강구 등의 응답을 하였다.

사회환경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지역단위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 학생들의 친환경적 생활의 버릇화, 입시 제도 개선, 환경문제는 현실성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필요, 환경교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질적인 환경교육 시킬 수 있도록 준비, 환경단체 스스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 모범이 되어야 함, 환경 NGO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학여행, 소풍 때 생태기행 도입, 교육부와 환경부 부처간의 협조 필요, 학교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상호협조가 필요, 학교장이나 교사의 인식 전환 등의 응답을 하였다.

4)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지역은 학교의 경우 경상도(21.4%), 충청도와 전라도(각각 14.3%),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도·제주도(각각 7.1%)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서울(67.6%), 경기도(11.8%), 대구·전라도·경상도(각각 5.9%), 인천(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수는 학교가 100명~500명 미만(50.0%), 회원 운영 안함(35.7%), 50명~100명 미만, 1000명~10000명 미만(각각 7.1%)의 순으로, 사회환경단체가 100명~500명 미만(32.4%), 1000명~10000명 미만(23.5%), 10000명 이상(17.6%), 500명~1000명 미만(14.7%), 50명~100명 미만(5.9%), 50명 미만과 회원 운영 안함(각각 2.9%)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설립 연도는 학교가 1980년 이전(63.6%), 1996년~2000년(18.2%), 1981년~1985년, 1991년~1995년(각각 9.1%) 순으로, 사회환경단체가 1991년~1995년, 1996년~2000년(각각 38.2%), 1980년 이전, 1986년~1990년(8.8%), 1981년~1985년(5.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학교는 남, 여가 각각 50.0%로 동률을 이뤘고, 사회환경단체는 여자가 52.9%로 47.1%의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학교의 경우 40대(76.9%), 50대(15.4%), 20대(7.7%) 순으로,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30대(45.5%), 40대(30.3%), 50대(12.1%), 20대(9.1%), 70대(3.0%)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을 경험한 경력은 학교가 3년(41.7%), 2년과 11년 이상(16.7%), 1년, 5년, 6~10년(각각 8.3%) 순으로, 사회환경단체는 6~10년(26.5%), 3년(17.6%), 1년, 2년(각각 14.7%), 11년 이상(11.8%), 5년(8.8%), 4년(5.9%) 순으로 나타났다.

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환경교육 현황 파악 및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 연구 방법으로써 설문지 조사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의 연계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나, 현재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기관의 경우 사회환경교육을 진행할 때 학교와 사회환경단체 연계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학교는 50%, 사회환경단체의 경우는 79.4%로 나타났고, 그 경로는 학교의 요청과 기관의 자발적(자체적) 노력에 의해서, 환경교육 강사를 학교환경교육에 지원하거나, 학교 학생들이 사회환경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의 경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을 사회환경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인식 및 지원부족 꼽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시간 마련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환경교육(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은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환경교육(환경NGO/환경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며, 정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연구기관·기업은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재정적 지원을 가장 우선시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주도적 역할은 학교는 '초·중등학교와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사회환경단체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지역 이해당사자(학교, 학부모, 교육청, 민간환경단체, 기업 등)의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부와 기업은 환경교육을 위한 실비 및 환경교사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환경교육 홍보를 통한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 변화 유도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환경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부 및 학교는 정기적으로 환경교육 시간을 할당하고, 사회환경교육단체는 지역의 환경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의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련 행사를 주관하여, 학생 또는 학교가 사회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